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보를 기다립니다’

- 4.1일(수) 온·오프라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개시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3.31일(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서울 중구 명동)를 찾아 준비상황 점검
- ‘2026년 일제 현장점검 실시’ 등 기 마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1일(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4.1일 00:00시~)과 오프라인(4.1일 09:00시~)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보조금통합포털’ 사이트(<https://www.bojo.go.kr>)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메뉴를 누른 다음 「국고보조금 ‘바로’ 신고」 메뉴의 ‘신고하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도 동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결되는 배너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콜센터는 한국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내에 전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평일 09:00~18:00)하며, ARS 안내에 따라 7번을 누르면 전문상담사와 연결되어 부정수급 제보 방법,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사업 확인 등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현장점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은 3.31일(화) 오전 e나라도움 고객센터(서울 중구 명동 소재)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임기근 차관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개설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강력한 감시망으로 자리매김하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금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결정된 근절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마련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단 장	강대현 (044-214-3370)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담당자	서기관	정윤홍 (yoonhong@korea.kr)
			사무관	박미경 (gabkyung@korea.kr)
	한국재정정보원	책임자	부 장	정혜윤 (02-6908-8542)
	보조금시스템관리부	담당자	차 장	이학윤 (02-6908-8552)

